

보도	2023.10.26.(목) 조간	배포	2023.10.25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지분공시1팀	책임자	국 장 이 석 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 장 영 심 (02-3145-8475)
	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	책임자	팀 장 이 방 우 (02-3145-8486)
		담당자	국 장 김 철 호 (02-3145-7750)
			팀 장 김 경 료 (02-3145-7752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원사와 간담회 실시

I 간담회 개요

- 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24일(화)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, 상장회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*에 대해 논의하였음

*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, ESG 공시제도,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

☒ 일 시 : '23. 10. 24.(화) 12:00 ~ 13:00

☒ 참석자 : (금감원) 금융감독원장, 공시·조사담당 부원장보, 회계전문심의위원
(상장회사협의회) 정구용 회장, 정우용 부회장 외 회원사 임원 4인

II 주요 논의내용

- 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대출 증가, 미국 국채 금리 급등, 이스라엘-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
-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하여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들과 의견을 나누었음

□ **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** 및 **회원사**는,

- 도입 중인 ‘내부자거래 사전공시’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,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**완화**해 줄 것을 건의함
- 또한, ‘ESG 공시제도 로드맵’ 마련 과정에서 **상장회사**들의 의견이 보다 폭 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,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**중복공시 부담**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을 전달하였음
- 한편,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, 지정제 합리화 등의 ‘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, 기업부담이 큰 ‘주기적 지정제’는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음

□ **이복현 금융감독원장**은 경영 현장에서의 체감하신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,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금융규제·감독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

- ‘내부자거래 사전공시’는 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
- ‘ESG 공시’의 경우 기업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도입시기를 ‘26년 이후로 연기했는데, 향후 공시기준, 대상,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힘

- 아울러,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,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
-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하였음

III 향후 계획

-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금융·경제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경영 상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것임
-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, 현장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 수렴할 예정임